

잘리고 뚫리고 또 뚫리고...수난의 제석산

광주 동구 용산지구개발 터널공사에 자연훼손·안전문제 우려
“기존 터널 200m 옆에 또 터널이라니...” 인근 주민 강력 반발
학계·환경단체 난개발 중단 호소...동구·LH “절차 문제없어”

광주시민의 도심 속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제석산(해발 205m)이 지난 20년간 도로개설 등을 이유로 수차례 수난을 겪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용산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 터널공사까지 시작돼 자연경관 훼손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0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산 957억원을 투입해 용산동 323번지 일대 2181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총 면적 19만2139㎡)를 조성하는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 주민 입주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진·출입로다. 현재 용산지구에는 폭 10m 규모 왕복 2차로가 조성돼 있는데, LH는 대규모 입주에 따른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 확충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LH는 2차로인 용산초교 앞 도로를 4차로로 넓히고, 용산지구와 봉선동을 잇는 도로를 새로 개설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새 도로는 동구 용산동 광주영신원 인근부터 남구 봉선동 소화자매원 인근까지 개설될 예정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규모는 왕복 4차로(폭 20m)으로, 총 길이는 463m이고 이중 제석산을 관통하는 터널 구간은 200m다.

하지만, 본격적인 터널 굴착공사를 앞두고 소화자매원 인근 모아엘가 아파트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석산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잘려나가고 산이 깎이는 등 자연 경관 훼손과 함께 소음·분진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 도로 끝자락은 S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다, 도로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모아엘가 아파트 주민 고모(60)씨는 “제석산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여유를 주

는 공간으로, 봉선동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심 속 산책로이자 등산로”라면서 “제석산을 뚫어 용산터널을 만든 것도 부족해 또다시 불과 200m 떨어진 위치에 터널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할말을 잃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동구와 LH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같은 해 동구·봉선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공람·공고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공사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보상 문제로 인해 토지

제석산 20년 수난사 보니
▲1999년 도로공사로 절단
▲2004년 용산터널공사 관통
▲2017년 또 터널공사로 신음

수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 일부가 S형태로 설계됐다”며 “훼손된 자연 경관은 나무를 식재해 복구하고, 소음·분진 문제가 생기면 LH와 협의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제석산 일대 난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제석산은 지난 20여년간 수차례 잘리는 수난을 겪어왔다. 지난 1999년에는 봉선동 문성고등학교와 원제 마을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고 구름다리가 생기며

제석산 일부가 수직으로 깎였다.

지난 2004년에는 광주 제2순환도로와 봉선동을 잇는 용산터널(왕복 4차로·길이 200m)이 개통돼 산이 뚫렸다. 이번에 착공한 터널과 용산터널은 불과 200여m 거리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제석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용산지구 개발 계획 자체가 문제”라면서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 신중한 고려 없이 개발을 추진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로를 만드는 공사과정에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그동안 제석산이 여러 차례 파헤쳐진 만큼 앞으로는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아엘가아파트 인근 제석산 자락에서 동구 용산동과 봉선동을 잇는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봉선동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안전문제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행돈 9억 횡령 해외 도피 19년만에 자수...징역 3년

은행에 근무하는 처남과 짜고 수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50대가 19년 만에 자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남과 공모해 금융기관의 전산을 조작하고 계좌이체, 현금화, 해외 도피 등 범행의 전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돼 이뤄졌다”며 “9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후 공범 및 가족들과 필리핀으로 출

국해 19년간 도피생활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9월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맡은 처남 B씨와 짜고 은행 돈 9억 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A씨는 처남이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해 괴로워하자 고객의 돈을 계좌로 이체해 해외로 도피하자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A씨는 지난 6월 필리핀대사관으로 찾아가 자수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골프장 여직원 폭행 혐의 중견건설사 회장 수사

지역 중견건설사인 N건설 회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나주경찰은 10일 “N건설 마모(80) 회장이 골프장 여직원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 회장은 지난 1일 오후 나주시 H골프장 ‘그늘집’에서 여직원 A씨에게 “애 술집 여자처럼 립스틱을 빨강게 칠했느냐”고 지적하며 왼쪽 주먹으로 직원의 왼쪽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늘집에서는 다른 손님 3~4명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식당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마씨가 지난 1일 낮 12시 58분 20초째부터 55초까지 35초간 A씨를 쫓아다니며, 주먹을 6차례 휘두르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린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A씨는 ‘그늘집’내 주류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고 있었으며, 마 회장 일행이 식당을 나간 뒤 얼굴을 감싸고 우는 듯한 A씨의 모습도 찍혀 있다. A씨는 골프장에 시작서를 제출한 뒤 나주 모 병원

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가정불화 노부부 잇단 황혼살인

남편 살해 70대 할머니 체포
60대 부부 숨진채 발견도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해야

가정불화에 따른 노부부의 황혼 살인이 잇따르면서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10일 “9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74)할머니를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할머니는 지난 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모 아파트의 안방에서 남편인 B(79)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할머니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20여일전 고관절 수술을 받고 10여일 전에는 치매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를 꺼내다 떨어뜨려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의 지팡이를 남편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할머니는 이어 “22살에 남편과 결혼한 이후 50여년간 술만 마시면 돌변해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할머니는 폭행으로 쓰러진 남편이 살아있었는데도 조치 없이 인근의 양로원에 다녀왔으며, 오후 7시께 들어와 남편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 자녀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할머니는 또 이날 경찰이 오기 전 범행 현장을 청소하고 피가 묻은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고 지팡이에 묻은 피도 닦아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팡이에 수차례 맞은 B씨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가 골절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11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할머니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일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는 평소 부부싸움을 자주하던 60대 부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남편(64)이 아내(64)를 흉기로 찌른 뒤 음독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부부간 부부싸움이 많고,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담양 노부부 사망 원인은 등유 난로 불안전연소 중독”

국과수 1차 소견 나와

경찰이 지난 6일 담양에서 숨진 노부부<광주일보 12월8일자 6면>의 사인이 ‘등유 난로의 불안전 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오

에 따라 난로의 불량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등유 난로의 불안전 연소에 따른 사망사고는 주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는 입장이다.

담양경찰은 10일 “지난 6일 담양군 월산면 자택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71)씨·윤모(여·60)씨 부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한 결과 ‘등유 난로의 불안전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가 발견될 당시 거실 한가운데 놓인 등유 난로가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켜져 있었으며 ‘베베’ 소리가 나고 있었다. 경찰은 등유가 일부 남아 있던 점으로 미뤄 난롯불이 켜졌다가 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등유 난로가 불이 꺼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작 미수, 제품 하자 등을 놓고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 부부는 평소 16㎡(5평) 크기의 거실에서 생활하면서 추위를 쫓기 위해 보조 난방기구로 등유난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될 당시에도 둘 다 두꺼운 옷차림이었으며, 전기장판도 켜져 있었다.

한편 경찰은 집입 흔적이 없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부검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ja@

입원치료 거부하자...환김에 병원 불지르려한 40대



○...“입원치료를 더 받고 싶다”고 했는데, 퇴짜를 놓은 의사에게 앙심을 품고 병원에 불을 지르려한 40대 환자가 경찰서행.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3)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모 병원 5층 간호사실 앞에서 병원 앞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20ℓ를 병원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라

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 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일 무릎 관절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지 않았음에도 수액을 맞은 것처럼 하위 처방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에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을 포함해 250여명이 있었으며, 김씨 때문에 대형 화재가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